
제3세계 여성정책 및 교류확대를 위한 연구 몽골여성의 자립지원에 대한 전략개발

연구책임자 : 김 경 애 (본원 원장)

공동연구자 : 양 인 숙 (본원 연구위원)

김 은 경 (본원 전문연구원)

정 혜 선 (본원 연구원)

추 애 주 (본원 객원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발 간 사

세계화가 가속화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더불어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의 여성정책 개발 성과의 공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원은 이에 개발도상국의 여성 문제에 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3세계 및 북한여성정책 연구와 여성정책에 대한 컨설팅 기관으로서 역할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중장기 경영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영목표에 따라 그 첫 번째 시도로서 몽골의 여성정책 개발 및 교류확대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앞으로 활발히 전개될 한국과 몽골의 여성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몽골은 지금 한국의 경제발전 및 여성정책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최근 몽골은 한국의 기업, 대학과 적극적 교류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몽골 여성의 정치·경제 참여 현황,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교육, 체제변화와 여성문제, 몽골 정부의 여성정책 등을 살펴보고, 한국과 몽골의 여성과 개발 분야 교류확대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몽골의 발전과 여성문제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몽골의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개발원조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더불어 우리의 여성정책 영역의 확장과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기초 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 연구의 현지조사에 응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수고해주신 연구진, 바쁘신 가운데 자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김 경 애

연구요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과거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던 몽골은 최근 한국의 기업, 대학과 적극적 교류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실정이다. 몽골에서는 여성을 정책 수요자로서 새롭게 인식하고 국제 사회에서 발전시켜온 여성과 양성평등에 대한 담론을 체화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몽골 여성의 정치·경제 참여 현황,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교육, 체제 변화와 여성문제, 몽골 정부의 여성정책 등을 살펴보고, 한국과 몽골의 여성과 개발 분야 교류확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2. 몽골의 여성 지위와 문제

몽골은 소련의 도움으로 1921년 독립을 쟁취한 뒤 1924년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사회주의를 채택한 국가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 보편교육, 보건 등의 사회복지가 발전하게 되었고, 여성의 정치참여와 사회활동이 활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부장제와 젠더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발전한 제도들은 그 뿌리가 깊지 못하였다. 1990년 민주화 혁명으로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다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후 여성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자본주의 경쟁 속에서 강화된 가부장제가 여성의 역할을 가정 내로만 다시 제한하게 되었고, 보건복지 예산이 감소하면서 가장 먼저 여성에 대한 보건복지가 취약성을 드러내게 되었다. 민주화 이행기의 경제적 충격은 남녀 모두의 소득 감소를 가져왔으며,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을 감소시켰다. 게다가 시장경제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많은 경제·사회적 기회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유리한 기회였다. 특히 농촌 지역의 여성들은 이러한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가족 규모의 농촌 경제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는데, 노동시간은 더 늘어나고 여성들의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도 증가하게 되었다. 물물교환에 의존하던 몽골의 농촌 경제는 무역업자와 중개상인들의 등장으로 인해 현금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몽골의 도시·농촌간의 격차는

더욱 악화되었다. 시장경제로의 전환기 이후에는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 여성에 대한 폭력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폭력이 증가하였다.

3. 몽골의 여성정책

1990년대 이전까지 몽골의 여성정책은 몽골여성연합(Mongolian Women's Federation)에서 주도하였는데, 여성연합은 시민단체의 지위를 가졌으나 정부와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모두 담당한 국가정책기구의 성격을 띠었다. 1995년 베이징세계여성대회를 통해 각국 정부들은 여성의 사회 경제적 역할이 강화와 국가정책의 성 감수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변화를 인식하게 되었다. 몽골 정부도 이에 예외가 아니었는데, 1996년 의회에서는 145번 결의안 “여성의 발전을 위한 국가프로그램(National Programme for the Advancement of Women)”이 통과되었다.

1996년 정부 결의안에 의해 설립된 국가여성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Women)는 2001년 국가양성평등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Gender Equality)로 확대 개편되었는데, NCGE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며,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정책자문관이기도 하다.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시작하였으나, 이후 사회노동부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2005년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되었다. NCGE는 UN기구, 양자원조기구 등의 여성 분야 협력을 위하여 창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6년 승인된 국가프로그램은 2002년 12월 승인된 결의안 274번 “국가양성평등프로그램(National Programme on Gender Equality, 이하 NPGE)”으로 확대 발전되었다. 이는 노동 구조의 변화, 실업에 있어서의 성차별 완화, 빈곤퇴치, 교육, 정치와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가정 내에서의 폭력을 줄이기 위한 정책 조성의 바탕이 되고 있다.

4. 여성정책개발 및 교류확대방안

과거 체제 하에서의 평등주의는 문화와 젠더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발전되었기 때문에 남녀의 성 역할 등과 같은 관습적 논리에 대한 문제제기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성별분리통계 구축, 생활시간

조사 수행 등을 통해 남녀 국민들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깊은 건강한 민주주의 육성을 위하여 시민사회 지원, 사회보장 확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 교육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이 요구된다. 나아가서는 최근에 증가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발과 공권력에 대한 성 인지 교육 및 가이드라인의 개발도 요구된다.

몽골에서는 최근 양성평등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 여성정책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동 법안의 주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몽골의 다양한 여성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현재 회의체 및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는 국가양성평등위원회(NCGE)로서는 역부족이며, 기존 체제에서 젠더 이슈를 담당해온 사회노동부의 여성정책 기능을 강화하거나 별도의 부처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 또한 과거에 빈곤을 경험하였고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몽골의 국민들은 한국의 경험과 정책들에 대해 더욱 큰 공감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개발 과정 중에서 국제적으로 선진적인 여성정책을 많이 개발, 수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몽골의 파트너십은 몽골의 여성정책 개발과 국가발전계획의 성 주류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한국의 여성정책 싱크탱크(think-tank)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듯이 몽골에서도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에 대한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를 통하여 몽골에 여성정책연구 및 여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차원의 예산 및 시설 지원과 더불어 여성 분야 민간교류확대도 함께 계획되어야 한다. 몽골의 우수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장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한국의 대학에서 여성학 및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함은 물론, 정책 담당자와 학자들을 초청하여 정책 개발 및 연구 방법론을 교육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여성단체 등 시민사회 간의 교류를 확대하여 한국의 민주화 및 여성정책 개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몽골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협치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유목 사회가 붕괴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농촌지역의

여성과 도시의 실업 여성들을 위한 직업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몽골 정부와 함께 개발해야 하겠다.

5. 결론

사회주의 하에서 제정된 몽골 헌법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약 12년간의 시장경제로의 전환기를 겪으면서 몽골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고 정부에서 제공되던 대부분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감소되었다.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감소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더욱 큰 타격을 받았으며 가정의 수입을 위해 가사 외에도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시장경제로 전환되면서 더욱 많은 사회적, 경제적 기회가 발생하였지만 이러한 기회들은 대부분 남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여성기업인들은 신용거래에서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으며, 여성의 정치참여와 고위직 여성비율 또한 체제변화 이후 현저히 낮아졌다.

몽골 정부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양성평등프로그램(National Programme on Gender Equality)을 채택하였으며 국가양성평등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양성평등의 의지를 예산으로 뒷받침하지 않고 있으며, 경험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국가양성평등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역부족이다.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지원이 크게 필요한 실정이며, 정책개발과 인력개발을 위한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의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지정학적으로 가깝고 과거에 빈곤과 여성차별을 직접 경험했던 한국의 정책과 경험들은 몽골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차원의 예산과 시설지원, 민간차원의 여성인력 교류, 여성단체들 간의 활발한 교류는 몽골의 여성정책 개발과 협치를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 차

| | |
|------------------------------------|----|
|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 II. 몽골의 여성 지위와 문제 | 3 |
| 1. 개요 | 7 |
| 2. 여성의 경제활동 | 8 |
| 3. 여성의 정치참여 | 13 |
| 4. 여성에 대한 폭력 | 16 |
| 5. 여성교육 | 18 |
| 6. 체제변화와 여성문제 | 20 |
| III. 몽골의 여성정책 | 23 |
| IV. 여성정책개발 및 교류확대방안 | 29 |
| 1. 몽골의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방안 | 31 |
| 2. 한국과 몽골의 여성과 개발 분야 교류확대 방안 | 36 |
| V. 결론 | 39 |
| 참고문헌 | 43 |
| 부 록 | 45 |
| 1. 국가양성평등프로그램 | 47 |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여성정책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 내 여성정책 네트워크를 주도해오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다양한 문화와 민족적 배경을 가진 이주자들이 유입되어 오면서, 다양한 문화와 가치의 교류 확대 및 갈등에 따른 다문화시대에 적응하는 정책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3세계 및 개발도상국 등으로부터 한국 여성정책발전 및 성과 공유에 대한 수요를 수용하고, 국제적 이슈에 대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단시일 내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변모한 우리나라의 역할은 더욱 크게 요구되고 있다. 긴 가부장제의 역사 속에서 선진적인 여성정책을 개발하며 성공적으로 여성의 세력화와 성 주류화를 이룩해온 우리의 경험은 특히 같은 문화권의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에게 큰 함의를 갖는다. 최근 우리나라와의 무역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를 제3의 이웃이라고 칭하는 몽골은 특히나 인종적, 언어적으로 우리와 가까운 국가이며, 최근 한국의 문화상품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어 한국이 갖는 영향력이 매우 커지고 있다. 몽골은 과거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최근 한국의 기업, 대학이 적극적으로 몽골에 진출하고 있으며, 몽골 정부도 이러한 교류의 흐름을 활용하여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지정학적으로 인접할 뿐만 아니라 최근 민관 양측에서 교류가 활발하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비율도 높게 증가하고 있는 몽골은 한국 여성정책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기에 적합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몽골은 정치적으로 입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으며, 1990년 이후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으나, 경제발전에 있어서 낙후되어 있다. 사회주의 국가로 출발한 몽골은 일부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아직까지 높은 편이나, 자본주의 경제의 충격으로 인해 가부장적 성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으며, 특히 정치적 대표성은 급락하고 있다. 몽골 여성의 교육 수준은 남성보다 높으면서도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 인데, 이는 공공부문과 전문직에 대한 가치보다는 경제성장에 대한 전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몽골은 형식적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으나, 실질적 민주주의는 요원한 현실인데, 이 같은 상황에서 풀뿌리차원의 여성정책이나 여성인적자원에 대한

4 제3세계 여성정책 및 교류확대를 위한 연구

정부차원의 지원은 매우 미비하다.

본 연구는 몽골 여성의 정치·경제 참여 현황,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교육, 체제변화와 여성문제, 몽골 정부의 여성정책 등을 살펴보고, 여성과 개발 분야 교류확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는 전문가 자문, 문헌연구, 현지조사의 연구방법이 사용되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 몽골 여성의 정치·경제 참여 확대와 몽골 여성의 자립기반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몽골의 여성 지위와 문제

| | |
|---------------|----|
| 1. 개요 | 7 |
| 2. 여성의 경제활동 | 8 |
| 3. 여성의 정치참여 | 13 |
| 4. 여성에 대한 폭력 | 16 |
| 5. 여성교육 | 18 |
| 6. 체제변화와 여성문제 | 20 |

1. 개요

12년간의 민주적 시장 경제로의 전환기를 겪으면서 개인의 자유와 의무가 증가했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교육, 보건, 고용, 경제적 기회에 있어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되었다. 1990년 이후의 국내개혁은 사회주의 시절에 확립된 여성의 권리에 관한 법적 구조를 증진시켰다. 몽골의 양성평등을 위한 우호적 환경은 법률과 규정, 국제적 협약, 양성평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위원회 설립, 양성평등 증진과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시민사회의 참여에 기인한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진행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몽골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왔다. 많은 여성과 남성들이 1인당 소득의 감소를 경험하였고 구소련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고 COMECON(공산권 경제상호원조회의)과의 국제무역 협정이 종결되면서 빈곤이 증대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 제공하던 대부분의 사회/경제적 서비스가 중단되었으며 보수주의가 강화되며 여성의 역할은 가정으로 다시 제한되는 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전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성장은 광범위한 규모의 경제 성장이 아니었고 또한 대다수의 몽골 국민들에게 안전한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시장경제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많은 경제·사회적 기회들은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에게는 더욱 얻기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여성의 경제참여가 감소하였다.¹⁾

과거 몽골은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수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기본적인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비교적 차별이 없는 사회였다. 몽골의 여성들은 남성과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보건, 더 긴 평균수명, 높은 수준의 교육을 누리고 있으며 더 많은 수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였다.²⁾

최근 각종 지표들은 실업률에 있어서의 불균형이 증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불균형은 여성과 청년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체 인구의 1/3이 빈곤을 겪고 있으며 더 많은 수의 여성들이 빈곤에 노출되어 있다. 국유자산의 민영화로 인한 결과들이 남성과 여성에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아직 남성들에 비해 여

1) Finch, Christopher (2002), Mongolia in 2001: Political Consolidation and Continued Economic Reform, USAID.

2)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2), Gender in Mongolia: Analysis based on the 2000 Census; Ministry of Health and WHO Mongolia (2006), Demographics, Gender and Poverty.

성들은 민영화의 혜택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 1990년 이후 여성들의 해고와 실업,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소득수준 이하인 여성가장 가구들의 증가율은 남성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경제적 충격은 여성들을 비정규직 분야로 내몰았는데 소득과 보건 분야에 있어서의 불안정성이 더욱 증가하였다.

특히 농촌 지역의 여성들은 이러한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가족규모의 농촌 경제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는데 노동시간은 더 늘어나고 여성들의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도 증가하게 되었다. 물물교환에 의존하던 몽골의 농촌 경제는 무역업자와 중개상인들의 등장으로 인해 현금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몽골의 도시·농촌간의 격차는 더욱 악화되었다. 시장경제로의 전환기 이후에는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 폭력사건 또한 증가하였다.

2. 여성의 경제활동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고용현황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남성 근로자들은 광업, 에너지, 건설, 수송 분야에 주로 고용되어 있는 반면 여성 근로자들은 호텔·음식점과 같은 관광업, 보건, 사회복지, 교육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 근로자들이 남성 근로자들에 비해 훨씬 높은 교육수준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액수의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남성 근로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업이나 수송 분야는 여성 근로자들이 대부분인 보건, 교육 분야에 비해 급여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남녀 급여차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남성 근로자들이 여성 근로자들에 비해 교육 수준이 낮은 편이지만 남성 근로자들은 여성 근로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관리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몽골 통계청(NSO)에 의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실시된 표본 통계조사에 의하면 전체 근로자의 48%가 여성인 사업장의 경우 관리직의 35%만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관리직에 있는 남성 근로자의 급여는 같은 직위의 여성 근로자에 비해 급여가 약 2배정도 더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현재 몽골의 노동법은 성별로 인한 급여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남성 근로자들은 같은 직업과 직위의 여성 근로자들에 비해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증거들이 있다. 이러한 임금의 격차는 노동시장에서의 왜곡과 차별을 설명해주

고 있으며 몽골 노동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들의 잠재적 공헌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³⁾

몽골의 여성들은 전문 직종에 있어 남성들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성들은 전문직, 기술직, 사무직, 서비스 분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6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민간 기업 분야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여성은 무역, 호텔, 재정, 사회서비스 등의 서비스 분야에 있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 행정, 국방 부문의 대부분은 남성이 차지하고 있다.⁵⁾

그러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겪으면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이득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여성들은 도시지역의 비정규직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 식품가공처리와 같은 저자본 사업이나 농촌 지역의 유목업과 같은 자영업이나 무급노동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들은 가족, 아파트, 중소기업 등의 정부자산 민영화에 있어 동등하게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 남성을 가정의 가장으로 규정한 성 규범, 자산분배에 있어서의 권력관계와 구조에 의해 여성들은 정부자산 배치에 있어 제외되었다. 2002년에 통과된 새로운 토지 법률과 민영화 관련 법률은 이러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는데 자산의 분배가 개인별이 아닌, 가구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⁶⁾

여성들은 또한 시장경제로의 전환기에 실업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으며 정리해고의 우선 대상이 되었다. 고용에 있어서의 성차별은 몽골에서 흔한 일이다. 정규직 분야에서 여성들은 출산 수당이나 육아휴가를 포기할 것을 강요받으며 민간기업 분야에서 채용광고를 낼 때에는 성별, 나이, 용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있다.⁷⁾ 게다가 고용주들은 육아와 가사의무 때문에 여성의 고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동등한 수준의 교육과 경력이 있는 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 관리직은 통상적으로 남성에게 주어진다. 또한 여성들은 사업의 폐쇄나 구조조정 시 첫 번째 해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⁸⁾

3) Asian Development Bank and World Bank (2005), Mongolia Country Gender Assessment.

4) UNDP (2001), Common Country Assessment for Mongolia, p.2.

5) Nalini Burn and Oyuna Oyuntsegseg (2003), A gender Lens on the Rural Map of Mongolia: Data for Policy, UNIFEM, p.36.

6) Finch (2002).

7) Nalini Burn and Oyuna Oyuntsegseg (2003).

8) UNIFEM (2001), Women in Mongolia.

여성의 나이 또한 고용기회에 영향을 미치는데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여성은 “사회적 보장”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받는다. 사회보장 시스템은 지속근무 연수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출산으로 인해 유급/무급의 휴가를 가졌던 여성들은 현재의 사회보장 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비정규직 분야의 여성 근로자들은 사회보장보험이나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불평등한 가사분담으로 인해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더 많은 노동을 강요받는다. 농촌 지역의 여성 목축업자들은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도 요리, 청소, 물 길 어오기, 연료 구해오기, 육아를 책임지고 있다. 농촌 지역의 여성들은 이렇게 급여도 받지 못한 채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남성에 비해 하루 2.5 시간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축업 가정을 위한 정부의 사회복지제도의 감소는 여성들이 육아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 감소를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여성이 급여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복지 제도와 정부 정책은 감소하였다.

여성들은 또한 민영화로 인한 배당에 있어 남성보다 적은 몫을 받았다.⁹⁾ 아파트와 가축과 같은 민영화된 자산은 주로 남성 가정의 소유로 등록되었고 이로 인해 여성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자산을 이용하거나 배우자의 허락 없이 자산을 담보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 큰 제약을 받았다. 정부 수급권의 불평등한 배분으로 인해 여성들은 더 적은 몫의 자산을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여성들은 정규 사업을 시작하고, 유지하고 확장하는데 있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히 여성 가정의 경우 남성 가정과 동등한 자산을 배분받지 못했고 이는 여성들을 더욱 빈곤한 상태로 몰아넣었다.¹⁰⁾

여성과 가정 소득

생계를 위해 맞벌이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든지 여성들은 가정의 수입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장이 풀타임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빈곤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다. 남성이 가족의 부양자라는 전통적인 인식이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현실은 변

9) Gender 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3), Mongolia Gender Profile.

10) UNDP (2001), p.9.

화하고 있다.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36.0%의 여성들이 가정의 실질적 부양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33.1%의 여성들은 가정의 수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25.6%의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수준의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빈곤 여성층의 증가는 몽골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시장경제로의 전환기에 발생한 빈곤의 원인은 경제 성장의 감소, 실업, 인플레이션, 물가의 급격한 상승, 소득의 감소, 사회복지 서비스의 감소이다. 특히 많은 자녀를 둔 여성가장의 경우 빈곤에 심각하게 노출되었다. 빈곤 가정에 대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24.8%가 여성 가장이며 23%는 가정 구성원 중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전혀 없는 무소득 가정으로 나타났다. 빈곤은 소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건강과 교육수준의 악화로 인한 인적자원의 감소도 야기하고 있다. 1996년의 경우 학교 중도퇴학자의 1/3은 빈곤가정의 학생들이었으며 그들 중 대다수는 편모 가정에 속해 있었다. 빈곤 문제가 증가하면서 “거리의 아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여성문제에 관한 국가 프로그램은 여성빈곤층의 증가에 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1995년 이후 빈곤퇴치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수행해왔으며 특히 여성 빈곤층의 퇴치에 큰 노력을 기울여왔다. 빈곤퇴치 프로그램은 여성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 훈련 제공과 같은 세부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성발전기금(Women's Development Fund)이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여성발전기금은 또한 여성관련 NGO의 발전을 위해서도 일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빈곤퇴치에 있어 여성의 기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NGO의 참여 증대는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으며 중점을 두고 있는 주요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 국내, 국제 지원을 포함한 재정적 자원의 활용
- 빈곤층을 위한 프로그램 증대
- 지역공동체와 NGO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역량 구축
- 프로그램 관리, 감시의 강화

여성의 기업 운영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몽골의 여성들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482개의 중소기업(고용인 1명 이상 21명 이하)의 통계를 보면 이 중 1/3의

소유주가 여성이었다. 고용인이 1명 이상 5명 이하로 중소기업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의 경우, 여성 기업주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여성 기업주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에 비례하여 여성 기업주나 관리자의 비율도 함께 증가하는 것은 아니었다. 무역업과 제조업의 경우, 남성 기업주가 여성 기업주에 비해 훨씬 많은 편이다. 무역업의 경우 기업주의 20%가 여성이며 제조업의 경우 25%가 여성기업주이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더 많은 비율의 여성 기업주(35%)가 있다.

울란바토르와 21개 아이마그(都)의 또 다른 통계자료에 의하면 민간기업주의 26.2%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¹¹⁾ 그러나 기업주로서의 여성의 활동은 대출과 신용거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대출이나 신용거래에 대한 접근성은 남성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다. 이것은 자산소유권에 있어서의 남성과 여성의 격차, 여성에게 불리한 대출조건, 대출계획에 대한 지식부족 등에 기인한다. 몽골의 빈곤퇴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출계획에 대한 지식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이 대출을 받기는 아직 쉽지가 않다. 대출제도를 이용하는 법, 상환하는 법에 대한 정보, 교육, 조인, 지방정부의 보조가 필요한 실정이며 몽골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시장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비정규분야에 있어서의 여성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비정규분야의 경제는 여성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비정규분야의 경제는 규모가 작고 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며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 비정규분야에서도 비교적 큰 규모의 소득창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문판매, 시장상인과 같은 소규모의 무역업자, 택시기사, 수공예품 생산업자, 서비스 제공자 등이 포함된다. 여성들은 주로 비정규분야에 고용되어 있으며, 풀타임으로 일하는 여성 근로자들 중에도 비정규분야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비정규분야 종사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21개 아이마그(都)의 경우 42.8%, 울란바토르의 경우 34.8%의 여성들이 비정규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11) B.robison and A.Solongo (2000), The Gender Dimension of Economic Transition in Mongolia.

비정규분야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의 직종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울란바토르의 경우 대부분의 여성들이 신문판매대(63.4%), 가두판매소(51.3%), 시장상인(47.5%)으로 일하고 있다. 소수의 여성만이 택시기사(10% 미만)로 일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대부분 남성들이 자동차의 소유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택시기사로 일하는 것이 신문판매나 시장상인으로 일하는 것보다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업으로 택시기사를 택하고 있다. 또 다른 통계조사에 의하면 비정규 분야에서도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적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남성 5명당 1명이 한 달에 80,000 투그릭 이상을 버는데 비해 여성 12명당 1명이 한 달에 80,000 투그릭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3. 여성의 정치참여

1992년 여성들은 새로운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급격히 감소된 사회복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기 위해 NGO를 조직하기 시작했다.¹³⁾ 1992년 선거에서는 국회의 여성대표 비율이 24.9%에서 3.9%로 감소했는데 1998년과 2000년에는 각각 10.5%, 11.8%로 증가했다. 그러나 2000년까지 모든 행정직과 관리직의 여성대표 비율을 20%까지 늘리기로 한 국가적 프로그램은 실현되지 못했다. 여성들의 교육수준을 고려해볼 때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여성들의 참여는 아직 낮은 편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아직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¹⁴⁾

2000년 몽골의 여성 NGO들은 여성들의 기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법률, 고용, 사회적 문제에 있어 양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여성 NGO들은 국가적 사업에 관한 협력을 위해 도시와 농촌 지역의 기관들을 연결시켰다. 이러한 기관들은 시민주체 그룹들의 역할에 대한 기준점을 확립하였고 공공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켰다. 시민사회는 법률개혁에 기여했으며 민주주의에 있어 필수적인 법 제정에 있어서의 대중의 참여를 장려하였다. 이러한 노력

12) B. Robinson and A. Solongo (2000), The Gender Dimension of Economic Transition in Mongolia.

13) The Asia Foundation (2000),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Mongolia.

14) UNESCAP (2002), Country Report: Mongolia.

으로 인해 여성관련 기관들은 현재 몽골의 법률 구조 내에서 여성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상중이다.¹⁵⁾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여성 비율 감소는 여성 후보들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 국회의원의 능력이 제한받고 있다. 모든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양성평등은 우선순위가 아니며 시장경제로의 전환기에 있어 여성의 경제적, 정치적 지위의 악화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공동체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NGO들조차도 양성평등이나 빈곤 타파를 위해 필수적인 남녀 간 격차해소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대중매체에서 표현되는 성에 대한 사회적 관념 또한 여성의 지위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여성관련 단체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의사결정자, 정치적 지도자, 정부 관료, 민간 분야의 구성원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대한 지식과 자각이 부족한 상태이다. 몽골의 전통, 문화, 사회적 규범들은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몽골의 법률은 이러한 전통적 규범을 뒷받침하고 있다.¹⁶⁾ 또한 여성의 권리 행사를 감시하는 독립된 정부 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러 부서들과 NGO들 사이에서의 여성 관련 정책과 관심사에 관해 관할하는 국가적 차원의 자문위원회가 있으며 사회복지노동부 내에 여성과 청소년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¹⁷⁾

의사결정 과정과 공공업무에의 여성의 참여

몽골의 헌법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시절에 조성된 여성의 평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교육, 고용에 있어서의 동등한 기회와 출산비용 보조를 규정한 조항이 있다. 그러나 공공업무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은 1990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모든 정부 부서에서 다수의 여성들이 일하고 있지만 주로 낮은 직위에 한정되어 있다. 여성들의 높은 교육수준을 고려해보았을 때 교육수준 미달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없다.

15) Asian Development Bank and World Bank (2005).

16) UNIFEM (2002), Violence Against Women and Legal Framework in Mongolia.

17) U.S. State Department (2002),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경제적인 의사결정의 경우 정책입안에 있어서의 여성의 참여는 저조한 편이다. 경제적 의사결정자들은 다양한 직위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기/단기적인 경제 정책을 결의한다. 의사결정자들 중에는 공공/민간 기업의 관리자, 금융기관의 관리자, 기업가, 경제적 문제들을 다루는 공공기관의 행정수반, 경영 조직의 구성원, 직종별 조합의 고위관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의 여성의 참여는 현재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향후 연구 주제로 거론되고 있다.¹⁸⁾

<표 1> 의사결정직 여성 정치인 수

| 지위 | 1997 | | 2001 | | 2004 | |
|--------|------|----|------|----|------|----|
| | 전체 | 여성 | 전체 | 여성 | 전체 | 여성 |
| 대 통 령 | 1 | 0 | 1 | 0 | 1 | 0 |
| 의회 의장 | 1 | 0 | 1 | 0 | 1 | 0 |
| 의회 부의장 | 1 | 0 | 1 | 0 | 1 | 0 |
| 국무총리 | 1 | 0 | 1 | 0 | 1 | 0 |
| 의회 의원 | 76 | 8 | 76 | 9 | 76 | 5 |
| 장 관 | 9 | 1 | 11 | 0 | - | - |
| 지방단체장 | 373 | 9 | 338 | 11 | - | - |
| 대 사 | 28 | 0 | 30 | 1 | - | - |
| 지방의회장 | 22 | 0 | 22 | 0 | - | - |

출처: Asian Development Bank and World Bank (2005), Mongolia Country Gender Assessment, p.50.

과거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여성은 의회의 2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으나, 민주화 이후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가 여성의 정치참여를 크게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1990년 23%였던 여성의 의석비율은 민주화 이후 1992년 3%로 급락하였으며, 이후 1996년 2000년 총선에서도 각각 11%까지만 회복할 수 있었다. 2004년 총선은 7%로 다시 여성 의원 비율의 감소를 가져와 현재 76석의 의회에서 여성의원원은 5명에 그친다. (표 1 참조) 이 같은 여성 대표성의 감소는 사회주의

18) Nadia Taher (2006), Interests and need assessment: Towards a gender mainstreaming strategy for UNDP Mongolia.

시절에 운영되었던 여성할당제가 1990년 이후 폐지된 까닭이다. 이에 할당제 부활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드디어 2004년 총선 이후, 후보자의 30%를 여성으로 공천하는 제도가 승인되어 2008년도 6월에 있을 총선에서 처음으로 그 결실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명의 남자 의원들이 여성할당제를 다시 폐지하는 법안을 상정하였고, 의회는 2007년 12월 실용화도 되지 못하고 할당제는 폐지되었다. 엔크바야(Nambaryn Enkhbayar) 대통령이 곧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의회는 다시 거부권을 제한하여 할당제를 폐지하게 되었다.¹⁹⁾

4.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은 몽골 여성의 권리악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여성의 기본 인권 침해로 정의하고 여성폭력 문제를 대중에게 알리는 것은 여성의 권리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몽골에서는 남성이 가장으로 여겨지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지며 여성은 가정의 체면 유지를 위해서 이러한 폭력을 숨기도록 강요를 받는다. 몽골 정부가 CEDAW를 비롯한 다른 인권협약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형사법 내에 가정 폭력을 막기 위한 법조항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몽골에서는 최근 가정폭력과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증가되고 있는데,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가부장적 가치가 강화되고 있는 동시에 여성의 지위는 더욱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원인은 여성들과 여성단체들 사이에서 폭력에 대한 자각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여성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인의 인권이 향상되고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새로운 환경에서 폭력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여성단체들에 의해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조사가 실시되었는데 1998년 300명의 여성, 1999년 5,0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가폭력방지센터(National Center Against Violence, NCAV)의 조사에 따르면 3명 당 1명꼴로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 Mongolian Update, MonFemNet Newsletter, 2007.12-2008.1.

NCAV는 울란바토르의 6구역을 대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가정폭력이 일과 공공업무에의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다. 응답자들은 직장에서의 일의 효율의 감소, 자신감의 결여, 사회적 지위의 악화, 공공업무에의 참여 감소, 친구와 직장 동료의 상실, 인내심의 결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자기방어를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이나 친척을 살해한 혐의로 투옥된 여성들도 있으나 연구조사에 따르면 폭력 피해자의 절반 정도는 폭력사건을 신고하지 않았고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여성들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직장에서의 성희롱인데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성희롱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문화적인 측면과 고용주에의 의존성 때문에 이러한 성희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관리자나 고용주에게 반발하는 여성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통계조사 또한 쉽지 않은데 여성들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될까봐 또는 결혼생활에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워하여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폭력문제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권력구조가 확연히 드러나며 이것은 또한 가정 내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성들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자존심, 독립심, 행복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는다.

가정폭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 형태에 대한 연구조사 부족
- 일부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법률 서비스와 상담 서비스 등 폭력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 미비
- 자치구의 경찰관들과 같은 행정기관 직원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부족
- 여성폭력 관련 법률 조항의 부족

여성관련 단체들은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많은 여성변호사들이 새로운 여성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현재의 법률을 수정하기 위해 NGO와 연계하여 일하고 있다. NCAV와 몽골여성변호사연합(MWLA)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가정폭력 관련 법률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몽골의 가정법은 현재 부부 중 한쪽이 어떠한 형태이든 폭력을 사용하거

나, 배우자에게 끊임없는 압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한쪽의 생명, 건강을 위협하거나, 아동을 학대한 경우 심사기간 없이 이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NCAV는 지난 몇 년간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대중의 인식제고를 위해 언론, 대중매체를 이용해 훈련과 캠페인을 벌이며 노력하고 있다. 가정교육센터(Family Education Center)가 NCAV 내에 설립되었는데 가정교육센터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 NGO, 행정기관과 연계되어 있다.

국가인구정책(1996 National Population Policy)과 여성의 발전을 위한 국가프로그램(National Programme for the Advancement of Women)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였다. 여성문제를 다루는 국가양성평등위원회의 실무진은 여성폭력에 관한 사업계획들을 평가한 후 1996년에 제정된 목표들을 수정하고 일부 조항을 개선할 것을 충고하였다.

그러나 의사결정이 대부분 남성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주요 정부기관과 조직들 내에서, 심지어는 중간 관리층이 대부분이 여성인 기관과 조직에서도 여성폭력 문제는 아직 주요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차원의 움직임은 정책입안이나 수행 면에서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의 초안이 지역공동체와의 협의를 통해 발전되고 있지만 일부 국회의원의 지지를 받는 정도에 그쳤으며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을 위한 재활서비스도 부족한 실정이고 여성폭력 문제에 관한 교육캠페인 또한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²⁰⁾

5. 여성교육

가구당 직·간접적 교육비용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몽골의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들은 초·중등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교육 분야 또한 시장경제로의 전환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1인당 교육비 지출은 1991-96년 사이 53%까지 떨어졌다. 부유한 가정과 빈곤한 가정, 도시와 농촌의 격차에 따라 남학생과 여학생의 교육 참여율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20) Open Society Institute (2006), Violence Against Women: Does the Government Care in Mongolia?

교육에 있어서의 성불균형은 남학생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확대되었는데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유목업을 위해 남자 아이들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989년~1995년 사이 초등학교의 등록률은 98%에서 84%로 떨어졌고 중학교의 경우 65%에서 54%로 떨어졌다. 1996년의 경우 여학생의 초등학교 등록률이 93.8%인 반면 남학생의 등록률은 92.9%였다. 중학교의 경우, 여학생의 등록률이 65.5%, 남학생의 등록률이 49.1%였다. 농촌지역의 경우 중학교의 남학생 등록률이 41.6%, 여학생 등록률이 58.3%였다. 1996년 48,435명의 취학연령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중 20,660명(42.6%)이 여학생이었고, 27,835명(57.4%)이 남학생이었다. 중도 퇴학을 또한 높은 편으로 25%까지 상승한 적도 있으나 현재 중도 퇴학률은 감소하고 있다. 중간에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의 약 80%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주로 가축 유목 일을 하고 있다.

교사들의 경우, 여교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75%)이지만, 학교의 교장과 교육 행정부 관리자들의 대부분은 남성이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8년의 경우 22명의 교육센터 관리자 중 3명이 여성이었다. 교사들의 급여는 다른 모든 정부 관리들과 마찬가지로 낮은 편이다.

더 많은 수의 여성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는 추세인데 1993-1994년 사이 고등교육은 더욱 확대되었다. 공립학교는 46% 증가하였고 사립학교 또한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2배 정도 증가하였다. 공립대학교들은 단지 재정의 10%만을 정부에게 보조받고 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몽골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수가 훨씬 많다. 공립대학 학생의 68%, 사립대학 학생의 71%가 여학생이다. 이처럼 높은 여성 교육률에 대해 전문가들은 남성의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는 유목 문화에서 그 원인을 찾고는 한다. 일부에서는 아들이 부모를 모시고 딸이 시집을 가는 문화적 배경에서 가문의 평판을 위하여 아들보다 딸에 대한 교육에 치중하게 되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학교 교직원의 경우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고위직으로 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사범대학과 경영학 코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수들은 남성이다. 대학원 과정의 경우 여학생의 비율은 학부 과정에 비해 훨씬 낮은 편이다.

몽골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먼저 취업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미래에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높은 식자율과 교육 수준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미래의 노동 시장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²¹⁾

6. 체제변화와 여성문제

몽골의 국유자산 민영화는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으며 고용기회와 자산의 취득 두 가지 측면에서 성 차별을 야기하였다. 국유자산 민영화와 서비스 분야에서의 일자리 감소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는데 더 많은 수의 여성이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마그(都)에서는 농업 서비스 분야가 사라지면서 여성의 고용기회가 크게 감소하였다. 농촌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에서 민간기업 분야의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났다. 민간 기업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액의 대부분이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취업하기 쉽지 않았던 분야인 사회기반 시설과 건설업, 광업, 광물자원 탐사와 같은 중공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은 또한 교사나 다른 정부 기관 직원들보다 더 높은 급여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급여에 있어 격차를 보이는데 연구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서비스, 무역, 농업, 수송 분야의 144개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여성의 평균 급여가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았다. 국유자산의 민영화 과정 진행시 가장의 이름으로 등록되었는데 거의 모든 경우(90% 이상) 남성 가장이었다. 그 결과 여성들은 대출이나 신용거래 시 담보가 필요한 경우 가장, 대부분의 경우,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반면 남성 가장이 개인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여성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자산에 관한 권리는 1990년대부터 증가하는 이혼하는 부부들에게도 문제가 되었는데, 이러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법률이 입안되었다. 여성에 대한 소규모 신용대출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이 풀타임 비즈니스를 시작하기는 어려운 실정인데 정부와 비정부 기관의 노력으로 여성에 대한 소규모 신용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유사한 문제점들이 도시와 농촌 지역 여성 모두에게 존재한다.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주업이 유목인 사람들 중 45.2%가 여성이었는데 공동체로부터의 가축과 장비의 배분은 가족의 구성원 수와 유목 공동체에서의 신분에 기초해서 이루어졌다. 자산은 대부분 남성 가장의 이름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민영화 과정에서 자산 분배 시 여성

21) Nalini Burn and Oyuna Oyuntsegseg (2003).

유목업자는 그들이 받아야 할 자산보다 훨씬 적은 몫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 가장 가정들은 적은 양의 가축을 분배받았고 극빈곤층으로 내몰리게 되었다.²²⁾

여성과 농촌경제

시장경제로의 전환기는 도시와 농촌의 여성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 몽골의 가정은 남성과 여성의 권리와 책임이 다른데 전통적으로 유목민 가정에서는 특히 남성과 여성의 노동영역이 확연히 구분된다. 국유자산의 민영화는 이러한 유목민 가정에 2가지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유목하는 가축의 규모가 커지고 종류가 많아지면서 여성들 또한 가축을 돌보는 임무를 맡게 되어 남성과 여성의 노동영역의 구분이 희미해졌다. 다른 한편 가축의 규모가 커지고 종류가 많아져 여성의 일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의 노동의 구분은 강하게 유지되기도 한다. 가축의 구성을 보면 자급자족을 최대화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 종류의 가축만을 유목하다가 다른 여러 종류의 가축을 유목하게 되었고 이렇게 늘어난 가축들을 돌보기 위해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성들과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은 주로 전에는 남성들의 일이었던 가축을 돌보는 일에 매달리게 되었다. 가축이 늘어나면서 우유 생산 또한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전통적으로 여성들의 일이었던 우유 짜는 일 또한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들은 가정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유목 경제는 도시 경제에 비해 현금거래보다는 물물교환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우유 생산의 증가로 더 많은 현금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시장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우유 생산은 캐시미어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목민 가정은 자급자족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여성들은 빵과 같은 음식뿐 아니라 의류, 부츠, 텐트를 만들기 위한 펠트 등 더 많은 가정용품을 만들어야 했다. 여성들에게는 가축을 돌보는 일 뿐만 아니라 가사 부담 또한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 남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은 여성들에게는 과도한 것이며 정확한 연구조사 결과는 없지만 다양한 간접적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Gobi 아이마그(都)지역에서는 유목민 여성들이 비정규 교육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것

22) Finch (2002).

22 제3세계 여성정책 및 교류확대를 위한 연구

조차 시간이 부족하여 힘든 상황임이 보고되었다. 이른 아침 교육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는 것조차 우유를 짜야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며 일부 여성들은 남성과 아이들이 대신 우유를 짜주기보다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고 내용을 필기하여 준다고 말하기도 했다.²³⁾

23) United Nations Secretariat (2000), Country Report: Mongolia--Time Use Survey 2000.

III

몽골의 여성정책

1990년대 이전까지 몽골의 여성정책은 몽골여성연합(Mongolian Women's Federation)에서 주도하였는데, 여성연합은 시민단체의 지위를 가졌으나 정부와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모두 담당한 국가정책기구의 성격을 띠었다. 이후 여성의 발전을 위한 정책 업무는 1992년부터 보건복지부 내의 인구/사회보호 부문에 속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1996년부터 회의체인 국가여성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Women)의 사무국으로도 역할하며 관련 문제에 대한 조정, 감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산하에 사업계획 수행기관인 청소년가족여성청(Youth, Family and Women's Agency)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였다.

1995년 베이징세계여성대회를 통해 각국 정부들은 여성의 사회 경제적 역할이 강화와 국가정책의 성 감수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변화를 인식하게 되었다. 몽골 정부도 이에 예외가 아니었는데, 이를 반영하듯이 1996년 3월 수도 울란바토르에서는 “개발에 있어서의 여성”이라는 주제로 국가정책포럼이 열리고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 논의되었다. 정부 주요 부처 및 시민사회 대표들과 연구자들이 참여한 결과, 1996년 의회에서는 145번 결의안 “여성의 발전을 위한 국가프로그램(National Programme for the Advancement of Women)”이 통과되었다.²⁴⁾ 다음은 국가 프로그램이 다룬 주요 여성 주제들이다:

-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여성
- 여성과 빈곤
- 농촌지역 여성의 발전
- 여성과 교육
- 여성과 보건
- 여성과 가정
- 권력과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여성
- 여성에 대한 폭력
- 여성의 발전을 위한 국가 메커니즘
- 여성과 대중매체

24) Asia Pacific Development Centre-Gender and Development Programme (1998), Report on Post-Beijing Implementation in Mongolia, 260p.

국가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수행되었다:

- 여성발전 프로그램을 국가 개발 프로그램에 포함한다: 여성의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의 목표들과 사업계획들은 장/단기적인 국가/지방정부 개발 계획에 포함시킨다.
- 지방분권: 지방 정부는 지방분권 원칙 하에서 사업계획의 수행 시, 1차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 자원의 활용: 국가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재정적 자원은 중앙/지방 정부의 예산으로부터 연간 할당되며 민간기업과 NGO, 국제기구의 기부를 통해 자금을 조성한다.
- 공동체의 참여: 사업계획 수행 전략에 있어 정부는 지역공동체와 NGO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

1996년부터 2002년까지 국가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전략목표를 두고 여성정책을 수행하였다:

- 여성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으로 활동 가능한 여성들의 실업률을 5.8%까지 줄인다.
- 여성들의 빈곤율을 1994년 수준의 50%까지 줄이거나 전체 여성 인구의 10%까지 줄이고 절대빈곤을 퇴치한다.
- 학교의 중도 퇴학률을 줄이고 취학연령의 소년, 소녀들의 초등학교 등록률을 95%까지, 중학교 등록률을 90%까지 늘인다.
- 직업훈련과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한다.
- 여성을 위한 평생 교육 시스템을 개발한다.
- 산모사망률을 1992년 수준의 50%까지 줄이고 보건 서비스 질의 향상을 통해 유아 사망률을 33%까지 줄인다.
- 남성과 여성이 가정 내에서 육아를 포함한 가사분담에 있어 동등한 역할을 하도록 한다.
- 중앙/지방 정부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여성 대표 비율을 적어도 20%까

지 늘린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한다.
- 성차별 문제에 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강화한다.
- 사업계획의 실행에 있어 공동체와 NGO의 참여를 장려한다.

1996년 정부 결의안에 의해 설립된 국가여성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Women)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정부 각 부처, 연구자,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있었다. 위원회는 2001년 국가양성평등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Gender Equality, 이하 NCGE)로 확대 개편되었는데, NCGE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며,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정책자문관이기도 하다.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시작하였으나, 이후 사회노동부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2005년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되었다. NCGE는 UN기구, 양자원조기구 등의 여성 분야 협력을 위하여 창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NCGE는 과거 11명의 회원으로 시작되었으나 2005년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되면서 사무국이 설립되고 회원도 33명으로 증가되었다. 위원회는 회의체로서 장관 및 국회의원 등 정책결정자,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사무국에 4명의 정직원을 두고 있다. 각 도 및 구에 NCGE와 협력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으나, 이 같은 여성정책담당관(GFP: gender focal point)은 겸직이기 때문에 별도의 급여나 수당을 받지는 않는다. 과거 2006년까지 몽골에 유엔여성발전기금(UNIFEM)이 활동하던 시절에 이들 GFP에 대한 교육연수를 담당했었으나 보통 부처에서 젊고 의사결정력이 없는 직원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아 아직까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NCGE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지원으로 전문가 및 남녀 의원 각 5인과 함께 양성평등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NCGE가 회의체이고 여성부와 같은 주무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이 법을 누가 이행하는 주체가 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여성문제 관련 정보 네트워크는 중앙/지방의 통계사무소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약 40개에 이르는 여성문제 관련 통계지수가 수집, 분석되었으며 여성문제 관련 정보가 담긴 특수 책자가 발행된다. 또한 여성정보연구센터(Women's Information and

Research Center)는 여성관련 문제 분석에 있어 중요 역할을 하고 있다.

1996년 승인된 국가프로그램(National Programme on Advancement of Women)은 2002년 12월 승인된 결의안 274번 “국가양성평등프로그램(National Programme on Gender Equality, 이하 NPGE)”으로 확대 발전되었다.²⁵⁾ 이는 노동 구조의 변화, 실업에 있어서의 성차별 완화, 빈곤퇴치, 교육, 정치와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가정 내에서의 폭력을 줄이기 위한 정책 조성의 바탕이 되고 있다. 국가양성평등프로그램(NPGE)은 양성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표를 정하고 다음과 같은 활동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 가정 복지와 개발

가정과 가치 강화를 위해, 육아와 가사분담에 있어 부모의 동등한 역할을 위해, 법률제정과 시민들의 인식 고양을 통한 가정폭력 완화, 가정 자산에 대한 권리와 의사결정의 균형, 빈곤가정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제공과 재정적 지원

- 경제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증진, 고용기회 확대, 의료보험/사회보장 보험, 가정 경제에 있어서의 평등

- 농촌경제

농촌지역 학생 (특히 남학생)의 학교등록률 향상, 지역개발에의 참여, 영유아/산모 사망 감소, 고용과 소규모 사업에 있어서의 동등한 기회 제공

- 권한부여와 의사결정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의 여성의 참여 증대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적 메커니즘 강화, 시민사회의 참여

25) 자세한 사항은 부록 1의 프로그램 요약 번역본을 참조할 것.

IV

여성정책개발 및 교류확대방안

1. 몽골의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방안 31
2. 한국과 몽골의 여성과 개발 분야
교류확대 방안 36

1. 몽골의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방안

몽골은 소련의 도움으로 1921년 독립을 쟁취한 뒤, 1924년 사회주의를 채택하여 아시아의 첫 번째 공산국가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 보편교육, 보건 등의 사회복지가 발전하게 되었고, 여성의 정치참여와 사회활동이 활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부장제와 젠더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발전한 제도들은 그 뿌리가 깊지 못해, 1990년 민주화 혁명으로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다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하자, 여성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자본주의 경쟁 속에서 강화된 가부장제가 여성의 역할을 가정 내로만 다시 제한하게 되었고, 보건복지 예산이 감소하면서 가장 먼저 여성보건의 취약성을 드러내게 되었다.

또한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였는데 최근 중국, 한국 기업이 공격적으로 몽골에 진출하자 경제적 위기의식이 민족주의를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며 중국인이나 한국인 남성과 사귀는 일반인 여성이나 이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보복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유목사회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남성들의 실업률이 높으며,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남성들은 알콜 중독이나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시민사회와 정부의 주의를 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여성은 가사와 가정 경제를 모두 책임지는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농촌지역에 많은 여성 가장들의 부담은 매우 큰 편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없고 은행 대출 등에서 여성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여성들의 자활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몽골의 문화와 양성평등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과거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리원칙만을 고수하던 관습적 논리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성별분리통계 구축, 생활시간조사 수행 등을 통해 정확한 실태와 남녀의 수요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며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깊은 건강한 민주주의 육성을 위하여 시민사회 지원, 사회보장 확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 교육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발과 공권력에 대한 성 인지 교육과 가이드라인의 개발도 요구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 여성정책전담부서 설치가

전제되어야 하며 특히 최근 준비 중인 양성평등법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주무 부처가 필요하다. 현재 회의체 및 자문기구로서만 역할하는 국가양성평등위원회(NCGE)로서는 역부족이며 기존 체제에서 젠더 이슈를 담당해온 사회노동부의 여성 정책 기능을 강화하거나 별도의 부처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몽골 여성의 정치참여는 매우 미약하고 특히 보건부 1개 부처만이 여성 장관을 두고 있는 등, 고위 의사결정직에서는 거의 여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2007년 12월 새롭게 구성된 내각에서는 보건부, 외교부, 교육문화과학부 총 3개 부처에 여성 장관이 임명되어 몽골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여성정책은 기업가, 경제활동인구, 정치인, 교육자, 어머니, 아내로서의 여성들의 정책수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복지 서비스도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1) 빈곤퇴치

모든 영역에서의 성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들은 여성의 요구에 부응한 정부의 적절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정책에 더욱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양성평등프로그램이 채택된 지금은 구체적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위한 전략(EGSPRS)은 고용확대, 비정규분야에서의 중소기업 확대, 농촌경제의 생산성 향상,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 증진 등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영역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성관련 프로그램의 계획과 수행에 있어 경험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여성을 포함한 소외계층과 빈곤층을 위해 현재의 빈곤퇴치 프로그램은 수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빈곤에 있어서의 불균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인 여성을 상대로 한 상담이 필수적이다.

(2) 여성의 권한강화

시민사회는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몽골의 여성 NGO들은 국제조약과 협약, 헌법을 이용하여 오랫동안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를 자극해왔다. 양성평등프로그램의 수행으로 여성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만, 여성NGO들의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투쟁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3) 여성의 정치참여

정당들은 시민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지만 현재 여성의 이익대변에 있어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할당제나 다른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여성후보자의 수를 늘리는 것, 정치적 활동에 있어 중요한 지위를 여성들이 차지하도록 촉진하는 것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성관련 NGO들과 정당 내의 의원총회는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여성의원들을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다. 여성관련 NGO들은 또한 여성 유권자들이 헌법에 명시된 정치 참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여성들을 교육할 수 있다.

(4) 여성의 노동시간 단축

시장경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가사일과 가정경제에 대한 여성의 의무가 늘어나 여성이 노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여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의 노동시간에 대한 조사는 가사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역할분담의 필요성과 경제 성장에 있어서 여성의 공헌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노동시장에서의 성불균형

현행 노동법의 고용·승진에서의 성차별, 성희롱에 대한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 실업, 비정규 분야에서의 성불균형이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여성의 임금이 매우 낮은 제조업 분야의 노동기준 또한 개선되어야 하며 급여에 있어서의 성차별도 시정되어야 한다.

(6) 비정규 분야의 여성

구체적인 사업개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중소기업 운영을 장려해야 한다. 재산 공동소유를 통해 여성들 또한 동등한 재산권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법률과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의 재산권이 보장될 경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담보나 신용대출을 받을 때 여성에게 유리해질 수 있다는 효과 등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7) 교육에 있어서의 성불균형 해소

남학생의 낮은 교육률과 높은 교육수준을 지닌 여성들의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과 직업 기술을 연계시켜야 한다. 남학생들의 중도 퇴학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새로운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또한 해고된 고령의 여성들을 위한 직업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8) 여성의 보건 증진

아동사망, 영양실조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여성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여성들은 요리와 가사를 돌보는데 있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특히 농촌 지역의 빈곤여성층이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성보호에 대한 의식을 고양해야 하며 사회 전반에서 여성의 건강과 모성보건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9)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폭력 근절은 여성의 삶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시작이라고 하겠으나 몽골 정부는 아직 여성폭력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 의료인력, 사회복지사, 상담원의 양성, 여성과 아동학대에 대해 인내하도록 하는 전통적 관념을 깨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양성평등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폭력 문제 전문가 양성,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제고, 피해여성들을 위한 쉼터마련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10) 공공 부문의 개혁

직장에서의 성차별, 성희롱, 학대 문제로부터 여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며 행정기관에서의 노동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정책구성, 프로그램 계획,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 여성들의 요구와 관심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과정에 여성들이 참여하여야 한다. 양성평등프로그램의 수행에 있어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공공/민간 부분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여성의 참여를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1) 정부 각 부서간의 연계

정부 내 모든 부서들에서 양성평등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법에 대한 추가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자료 수집과 분석은 또한 정부 각 부서 내에서 여성차별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고 이러한 여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구상할 것인가 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12) 여성의 자립을 위한 기관 설립

여성관련 단체나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기관 설립을 장려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았을 때 단체구성을 통한 원동력은 혁신을 장려하고 경제/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여성관련 단체 조직은 여성권리 강화에 있어 큰 공헌을 할 것이며 여성관련 프로그램의 수행에 있어 기본단계가 될 것이다. 여성관련 단체들은 몽골의 사회, 경제, 정치적 부분의 다양한 영역에서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문제제기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여성관련 NGO들은 또한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에게 여성관련 문제들에 대한 분석 방법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13) 여성발전을 위한 개발원조 유치

일부 원조기관들은 이미 정부와 NGO들이 양성평등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을 지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 분야 또한 제한되어 있다. 모든 원조기관과 NGO들의 여성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양성평등 위원회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성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결과와 여성문제 관련 지표가 필요한 실정이다.

2. 한국과 몽골의 여성과 개발 분야 교류확대 방안

우리나라는 몽골과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으나 시민사회의 주도적인 역할로 성공적으로 민주화를 이끌어내었기 때문에 최근 몽골이 겪고 있는 전환기를 이해할 수 있는 감수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한국 내에서의 몽골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국제개발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변모한 극소수의 사례 중 하나이기 때문에 타 선진국과 비교해서 개발도상국과 더욱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또한 과거에 빈곤을 경험하였고 가부장적인 사회로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몽골의 국민들은 한국의 경험과 정책들에 대해 더욱 큰 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개발 과정 중에서 국제적으로 선진적인 여성정책을 많이 개발, 수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몽골의 파트너십은 몽골의 여성정책 개발과 국가발전계획의 성 주류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다수의 원조기관들은 또한 몽골에서의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다른 국가에서의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몽골 국민들은 아시아와 유럽의 다른 국가들의 사례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들은 NGO와 민간부문에서 일하는 여성들, 지역공동체에서 역할 모델로 성장할 수 있을만한 잠재력을 지닌 여성들에게도 또한 제공되어야 한다.

정부차원의 예산 및 시설 지원 외에도 민간부문의 교류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몽골의 여대생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한국의 대학에서 여성정책 관련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관련 단체나 NGO들 간의 교류를 확대하여 한국 여성단체들과 NGO의 선진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특히 몽골에서는 현재 여성문제 관련 데이터가 거의 없

는 실정으로 각종 데이터 수집과 분석기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므로 이 분야에 대한 교육이 지원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히 농촌지역의 여성들이나 실업/해고로 인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직업기술 훈련도 제공되어야 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한국의 여성정책 싱크탱크(think-tank)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듯이 몽골에서도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에 대한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으로 몽골에 여성정책연구 및 여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은 이를 위한 몽골의 여성정책 연구 및 교육 사업을 위한 사업 모델이다.

몽골의 여성정책 및 교육사업 개발안:

여성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배 경

한국은 국제적으로 단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국가발전을 이룬 사례국으로 인정받는다. 한국의 또 다른 업적은 국가발전을 이루는 동시에 서구 선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성공적인 여성정책들을 개발해 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과는 여성정책 연구와 개발 및 교육을 전담한 전문기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국의 사례를 모델 삼아 몽골에서도 전문적인 정책개발 및 교육기관을 개발하여 양성평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방안을 꾀하고자 한다.

여성은 가정을 이끌어내는 힘이자 평화 구축의 리더이며, 지역사회의 살림꾼이다. 여성의 역량강화는 사회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경제적,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힘이 된다. 따라서 국가개발계획은 성 주류화 전략을 포함해야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나아가 협치(governance)를 통한 민주적 발전을 이뤄내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주요사업내용

1. 기간: 2008~2010년
2. 사업지역: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3. 목적:
 - 여성발전센터 설립을 통하여 여성연구의 토대 마련
 - 양성평등과 개발 정책을 입안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 여성 전문가 및 지역사회 여성의 인력 개발 및 역량강화
 - 한국과 몽골의 여성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

기대효과

1. 여성정책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구축
2. 몽골의 여성 전문가와 지역여성의 역량강화
3. 여성의 인력개발과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제고
4. 여성학 및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 강화
5. 여성과 개발 분야에 있어 한국과 몽골의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사업 분야 및 사업안

1. 직업교육: IT, 미용기술 및 각종 서비스업 직업교육
2. 인권: 성매매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소액대출: 여성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소액대출 프로그램 운영
4. 수자원 관리: 사막화 방지 및 수자원 관리의 성 주류화 사업 개발
5. 건강: 모성보건 및 사회보장 제도 개발
6. 정보화: 여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화 마을 사업
7. 정치: 여성 정치인 역량강화 교육

V

결론

사회주의 시절에 제정된 몽골의 헌법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몽골 정부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양성평등프로그램(National Programme on Gender Equality)를 채택하였으며 국가양성평등위원회(NCGE)를 설립하는 등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몽골은 양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발전시켜오고 있으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몽골도 개발의 주요 과제에서 여성과 양성평등이 우선시되지는 않는다. 여성단체는 물론 여성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부처들도 예산, 시설, 인적자원, 정보와 경험의 부족으로 여성정책 개발과 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정부는 아직까지 양성평등의 의지를 예산으로 뒷받침하지 않고 있으며, 경험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국가양성평등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역부족이다.

더군다나 약 12년간의 시장경제로의 전환기를 겪으면서 몽골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고 정부에서 제공되던 대부분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감소되었다. 이와 함께 여성에 대한 폭력도 증가하였으며, 체제 변화의 타격을 남성보다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여성들은 가정의 수입을 위해 가사 외에도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게 되었다.

시장경제로 전환되면서 더욱 많은 사회적, 경제적 기회가 발생하였지만 이러한 기회들은 대부분 남성들에게 주어졌고 몽골의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높은 교육수준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기회에 있어 차별을 받거나 남성들에 비해 훨씬 낮은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다. 국유자산의 민영화 과정에서도 자산분배가 개인별이 아닌 가구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남성이 가장으로 등록되어 있어 여성들은 자산분배에 있어서도 불평등을 겪었고 이로 인해 특히 여성가장 가구들은 빈곤에 더욱 쉽게 노출되었다. 특히 여성기업인들은 신용거래에서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정치참여와 고위직 여성비율 또한 체제변화 이후 현저히 낮아졌다. 국회의 여성대표 비율은 약 10% 정도이며, 국회 및 정부의 의사결정 체계는 여성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제를 두지 않아 시민사회의 신임과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성정책 개발과 양성평등프로그램의 수행에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몽골의 여성단체들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몽골 여성문

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양성평등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정부를 자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국가양성평등위원회의 경우 시민사회와의 정책적 대화를 이끌어내는 조직적 기제를 두고 있지 않을뿐더러 단지 2명의 NGO 대표만이 참여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양성평등과 여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여가 크게 요구되며, 특히 지정학적으로 가깝고 과거에 빈곤과 여성차별을 직접 경험했던 한국의 정책과 경험들은 몽골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차원의 예산과 시설지원, 민간차원의 여성인력 교류, 여성단체들 간의 활발한 교류는 몽골의 여성정책 개발과 협치(governance)를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Asian Development Bank and World Bank (2005), Mongolia Country Gender Assessment.
- Asia Pacific Development Center (1998), Report on Post-Beijing Implementation in Mongolia.
- B.robinson and A.Solongo (2000), The Gender Dimension of Economic Transition in Mongolia.
- Finch, Christopher (2002), Mongolia in 2001: Political Consolidation and Continued Economic Reform, USAID.
- Gender 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3), Mongolia Gender Profile. Mongolian Update, MonFemNet Newsletter, 2007.12-2008.1.
- Nadia Taher (2006), Interests and need assessment: Towards a gender mainstreaming strategy for UNDP Mongolia.
- Nalini Burn and Oyuna Oyuntsegseg (2003), A gender Lens on the Rural Map of Mongolia: Data for Policy, UNIFEM.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2), Gender in Mongolia: Analysis based on the 2000 Census.
- Open Society Institute (2006), Violence Against Women: Does the Government Care in Mongolia?
- The Asia Foundation (2000),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Mongolia.
- United Nations Secretariat (2000), Country Report: Mongolia--Time Use Survey 2000.
- UNDP (2001), Common Country Assessment for Mongolia.
- UNESCAP (2002), Country Report: Mongolia.
- UNIFEM (2001), Women in Mongolia.
- UNIFEM (2002), Violence Against Women and Legal Framework in Mongolia.
- U.S. State Department (2002),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부 록

| |
|---------------|
| 1. 국가양성평등프로그램 |
|---------------|

부록 1. 국가양성평등프로그램

몽골 정부 제274 결의문(2002년 12월 30일):

국가양성평등프로그램

제1조 의의

2000년 9월 UN 새천년 정상회담 (UN Millennium Summit)에서 빈곤, 질병, 문맹, 환경오염, 여성 차별 근절의 목표를 수립했다. 이에 알맞게 몽골은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장려하고 개발에 있어 또한 이들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쳐왔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사회에서 여성 역할의 확대를 장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1996~2000년간 여성 발전 국가 프로그램의 이행기 동안 여성 인권 보호, 생식 건강 증진, 교육받을 권리의 확대 등 여성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합의를 이루는데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여전히 실업률 및 빈곤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여성 및 노인들의 생활수준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현재 여성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빈곤 및 실업률 감소가 시급하며 여성 세대주에게 보조금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정 폭력 및 직장 내 차별을 근절시키고 소년의 퇴학을 감소, 남성의 학력 증가시키며 가족 관계에 있어 양성평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의사 결정 과정 및 실행 과정에 있어 여성의 참여를 증대시켜야 한다.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여 국가 양성평등 프로그램은 UN의 세계인권선언, 여성차별철폐조약 및 이와 유사한 조약에 의거하여 고안되었다.

국가양성평등프로그램은 경제사회발전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남녀 모두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발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가족이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의 제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데 있다. 또한 동 프로그램은 모든 단계의 의사결정에 있어 양성평등을 우선순위에 놓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국가 양성평등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강화하며 또한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이 동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가 및 지방 자원을 동원하여 양성평등 분야의 국제적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동 프로그램은 수행될 것이다.

제2조 목적

개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이끌어 내고 평등한 주인의식 및 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가능케 하는 환경을 제공하여 동 프로그램은 남녀 모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며 사회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원칙

- a. 양성평등: 사회 경제 발전 및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장려한다.
- b. 젠더 프로그램을 분야별, 지역별 정책 그리고 거시 경제 정책에 반영한다.
- c. 여론 조성 및 참여: 정책 입법자, 의사결정자, 정부 및 비정부 기관, 매스미디어, 민영부문 등에 젠더 관점이 형성되도록 지원하여 사회 개발에 남녀 모두 동등한 참여를 장려하도록 한다.
- d. 홍보: 양성평등을 위한 관련된 모든 안건을 지원하고 또한 장려한다.
- e. 젠더 이슈와 관련된 정보 접근: 젠더 관련 정보 및 남녀별 통계 수집을 장려한다.

제4조 기간 및 재정

동 프로그램은 2015년까지 유효하다.

1단계: 2003-2004

2단계: 2005-2008

3단계: 2009-2012

4단계 2012-2015

재정적 지원은 다음과 같이 확보한다: 국가 및 지방정부 예산, 공여기관 및 국제기관으로부터 받은 무상원조 및 지원, 민간부문 및 개인, 국내 및 국제 자본 투자, 기타

제5조 목표

1. 가족 복지 및 개발에 있어 양성평등

몽골은 250만의 인구와 55만 가정으로 이루어져있다. 통계상, 4.5명이 한 가구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몽골 정부는 가정이 경제적 자원 접근 및 권리를 장려하고 주인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가정 단위의 활동을 지지하는 많은 정책을 폈다. 그러나 여전히 동 분야에 있어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전환기에 가정은 긍정 및 부정적 결과를 맞보았다. 전체 가정의 9% 만이 부유한 삶을 즐기는 반면 36%는 빈곤을 겪고 있다. 게다가 6만 1300 여성 세대주는 궁핍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2001년 여성 세대주 가정은 61300호로 추정되는데 이는 1995년과 비교했을 때 2.4% 증가한 수치이다.

빈곤 가정의 교육 수준과 보건 상태는 악화되었으며 자녀 양육 능력은 떨어지고 가족 구성원 간 친밀감 역시 약해졌다.

알코올 남용, 부랑아, 매춘부의 숫자가 증가하고 가정 폭력의 사례 역시 증가하였다. 특히 여성, 어린이, 노인은 가정불화 및 폭력에 있어 대다수의 경우 피해자에 속한다. 혼인율이 줄어드는 반면 이혼율은 증가 추세에 있다.

가족 내 남성의 책임감을 고양시키고 남성의 교육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도시 및 농촌의 경제적 기회 창출 및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전면 지지한다.

가정 복지 및 발전, 양성평등 정책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있어 젊은 사람들의 결혼을 장려하는 주택대출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목표 1

지속가능한 가정 복지 및 개발의 환경 조성, 가족가치 유지를 위해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남녀 간 조화로운 파트너십이 가정 복지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가족가치를 교육한다.

기대효과 1.1

가족가치, 가정 내 구성원들의 동등한 책임의식, 남녀 간 동등한 권리에 대한 인정을 젊은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며 홍보 활동 증진

활동계획

- 1.1.1 가족 구성원들의 동등한 권리에 관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여 전반적인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1.1.2 가족교육에 있어 성인지적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도입한다.
- 1.1.3 위에 언급된 가족 이슈와 관련하여 공식적 및 비공식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1.1.4 각 행정 조직의 단위(aimag, sum, district 단위)에 가정 발전 센터를 설립한다.
- 1.1.5 선생님과 교육자로 하여금 학교 내외에서 가족관계 및 젠더 이슈에 대해 가르칠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 및 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한다.

목표 2

집안일 및 육아에 대한 가치에 대한 태도 변화를 가져오고 아이 양육에 있어 부모의 동등한 참여를 가져오도록 한다.

기대효과 2.1

남성의 가족 책임 및 가족 내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 및 이해 증진
양성평등 및 가족 책임 관련 남성 교육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수행

활동계획

- 2.1.1. 군대에서 병사를 대상으로 남녀 공동 가족 책임에 대한 인식 증진시키는 교육 프로그램 고안 및 제공한다.
- 2.1.2. 비공식적 교육 훈련을 통해 퇴학생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려한다.
- 2.1.3. 소년들로 하여금 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훈련 등 더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여 교육 분야 내 양성 격차 해소

기대효과 2.2

가정 복지 및 사회생활의 발전을 위해 남녀 간 동등한 권리 및 역할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 경감시킴

활동계획

- 2.2.1. 가계경제활동이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를 홍보한다.
- 2.2.2. 아동 보호 센터 등과 같은 서비스 및 기관을 지원하여 여성의 가사노동을 경감 시키다.

기대효과 2.3

아이들로 하여금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로 하여금 아이의 양육 및 보호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만한 법적 및 정치적 환경 조성

활동계획

- 2.3.1. 가정·아동권리법을 시행하고 부모의 책임을 증대한다.
- 2.3.2. 아동 보호 및 가족 전반에 관한 부모의 동등한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부 및 비정부 기관이 긴밀하게 협동 작업한다.

목표 3

양성평등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증대시키고 가정 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 환경을 조성한다.

기대효과 3.1

양성평등에 대한 일반 대중 인식 고양

활동계획

- 3.1.1. 미디어 매체를 이용하여 일반 대중을 위한 양성평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한다.
- 3.1.2. 모든 교육 과정에 있어 젠더 관점을 반영한 인권을 구체화한다.
- 3.1.3. 교육자 대상의 인권 문제와 성인지적 훈련의 내용을 담은 교육 정책을 고안하고 실행한다.

기대효과 3.2

가족 및 사회 내 양성평등 연구 및 조사 능력,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개념적이며 실용적인 방법론을 개발, 연구 결과를 배포하고 정책 및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활동계획

3.2.1 국가 양성평등 계획 시행 결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및 가정 폭력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며 향후 계획 수정 및 실시 방향을 제시한다.

3.2.2 현행의 젠더 분석 정책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성인지적 정책 및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함의를 도출해낸다.

기대효과 3.3.

가정폭력방지법 채택 및 시행

활동계획

3.3.1 가정폭력방지법 채택을 확실시키기 위해 홍보 및 로비 활동을 늘린다.

3.3.2 가정폭력은 인권남용이며 가족 내 폭력은 유해하며 분쟁 상황을 야기한다는 점을 부각시켜 대중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한다.

3.3.3 가정폭력 피해자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피해자에게 우호적인 법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시험적으로 실시한다.

목표 4

토지 등 가족 재산 소유권 문제에 있어 남녀 모두 동등한 권리 및 기회를 제공하며 소유권 결정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며 성인지적 빈곤 퇴치 정책을 실행한다.

기대효과 4.1.

주택, 토지, 가족 및 기타 재산권 등 소유권, 상속, 신용 대출 등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 수집 및 분석 역량 개발

활동계획

- 4.1.1 주택, 토지, 가축 등 기타 소유권, 상속, 신용 대출 등에 대한 성별 분석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국가 통계에 산입한다.
- 4.1.2 동 성별 분석 자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며 정책 입안자를 대상으로 정책적 권고를 시행한다.

기대효과 4.2.

빈곤 가정의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명백한 태도의 변화

활동계획

- 4.2.1 빈곤 가정을 대상의 상담 서비스를 각 행정 구역 단위로 하여 실시하여 가정 내 남녀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 복지를 위한 의사 결정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권장하게끔 한다.
- 4.2.2 빈곤 가정을 위한 훈련 교육을 홍보하고 시행하여 남녀 모두 가족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목표 5

양성평등 가족 정책 및 프로그램을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하고 시행하며 빈곤가정을 위한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를 개선한다.

기대효과 5.1.

가정법 개선 및 채택

활동계획

- 5.1.1. 가정법을 고안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한다.
- 5.1.2. 빈곤 가정, 특히 여성 세대주의 가정 대상의 사회 복지를 늘린다.
- 5.1.3.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효과적으로 사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자치권을 더 많이 부여하도록 법률 및 규칙을 개정한다.

기대효과 5.2.

가족 단위, 특히 여성 세대주의 가족의 국가 지원을 개선한다.

활동계획

5.2.1. 국가 지원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한다.

기대효과 5.3.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인식처를 만들어 여성들의 법적 심리적 상담과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설립

활동계획

5.3.1. 여성 및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복지사를 대상으로 젠더 및 가족 교육을 실시한다.

5.3.2. 각 행정 구역 단위에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센터 설립을 추진 및 지원한다.

5.3.3. 의사결정자 및 일반 대중의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가정 폭력 실태 관련 설문을 실시하며 여성 및 아동 대상의 가정 폭력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2. 경제 분야에 있어 양성평등

전환기를 거치며 몽골인들은 표현의 자유, 사회생활 참여의 확대, 정치 및 시민권 확대 등 많은 권리의 증진이 이루어졌으나 경제, 사회 부분에 있어 젠더에 기초한 권리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부각되지 못했다. 빈곤과 불평등 문제는 심화되었으며 개인 소득은 떨어졌고 물가는 상승했다. 이러한 변화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여성은 사회 및 경제 발전의 기여자가 아닌 수혜자라는 인식 때문에 국가 정책 역시 여성을 경제 수혜자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여성은 교육 분야의 64.5%, 보건 및 사회복지 부문의 71.3%, 변호사의 63%를 차지하는 등 여성의 경제적 활동은 매우 왕성하다.

가족 및 주택, 공기업의 민간화가 이루어지면서 상당부분 그 혜택은 남성에게 돌아

갔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체 수단을 찾아야 했으며 그 결과 많은 여성들이 자영업을 꾸리는 경우가 증가했다. 게다가 여성은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데 있어 외모 및 나이로 인해 차별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요컨대 정부는 토지 소유권 정책을 여성에게 좀 더 우호적인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이며 균형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경제 전략에 있어 여성의 경제적 권리 증진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

목표 6

거시경제정책에 양성평등을 반영하는 메커니즘을 설립한다.

기대효과 6.1

모든 성을 고려하는 거시경제적 전략과 정책을 추구하며 시행

활동계획

- 6.1.1. 젠더 관점에서 거시경제 정책이 빈곤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6.1.2. 빈곤퇴치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ic Paper)에 제시된 양성평등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연구 결과를 정책 및 의사 결정자에게 배포한다.
- 6.1.3. 부채, 세금, 고용시장, 공공 지출 등의 경제적 분야에서의 양성평등에 대한 연구 및 조사를 시행하여 국가 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한 젠더 분석 역량을 기른다.
- 6.1.4. 정책입안자 및 입안자들로 하여금 경제 발전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성 주류화를 도모하게 하도록 인식을 증대시키며 홍보를 활성화한다.

기대효과 6.2

구조 조정 프로그램 및 정책을 젠더 관점에서 재고 및 수정

활동계획

- 6.2.1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책 및 의사결정자에게 배포한다.

6.2.2 사회 민영화 부문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6.2.3 빈곤 가정 및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남녀의 잠재적 인력이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홍보한다.

기대효과 6.3

성인지적 통계 및 예산 개발 및 개선

활동계획

6.3.1 경제 비공식부문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실시한다.

6.3.2 도시 및 농촌 지방의 시간 활용에 대한 연구를 가능한 자주 실시하며 보상받지 못하는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일반 대중의 인식을 고양시킨다.

6.3.3 대가성 및 무대가성 노동 측정 시스템을 개선하여 점차적으로 여성의 무대가성 노동 지수를 국가 회계 시스템에 산입한다.

6.3.4 젠더 개발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를 만들어 정보 및 자료의 이용 가능성을 높인다.

목표 7

국가 회계 및 예산 체계를 개선하여 국가 예산 시스템에 성인지적 예산 접근방식을 도입한다.

기대효과 7.1

계획수립자 및 경제 전문가들의 정부 예산 작성 및 관리에 성인지적 접근 방법 도입

활동계획

7.1.1 국가 세입 관련 젠더 분석을 실시한다.

7.1.2 예산 할당 방식을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고 성인지 예산 방법을 고안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7.1.3 중앙 및 지방 입법자와 경제 전문가들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 방법론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기대효과 7.2

성인지적 예산 수입 및 지출 분석에 있어 민간 사회의 참여

활동계획

- 7.2.1 성인지 예산안을 고안하여 그 수행에 있어 모니터링과 평가 작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를 장려한다.
- 7.2.2 성인지 예산 분석 도입 절차를 계획하여 국회 및 지방의회에 제안서를 제출한다.

목표 8

고용, 보건, 사회 보험을 포함한 노동 시장 부문의 젠더 격차를 개선한다.

기대효과 8.1

고용 및 승진 등 노동 시장 내에 존재하는 성 차별 제거

활동계획

- 8.1.1 나이, 성별, 외모 등에 따른 차별적 고용을 제거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감시를 시행하며 계약 기간 동안 임신을 불허하거나 양육에 필요한 시간 할당을 하지 못하는 조건을 내거는 등의 인권유린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를 시행한다.
- 8.1.2 고등교육의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학기관 내 전문직 채용에 있어 쿼터를 설정한다.
- 8.1.3 여성에게 공식부문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계약에 기초한 고용을 가능하도록 한다.

기대효과 8.2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직업의 자유 보장 및 취업과 관련된 정보 접근 용이성 증대

활동계획

- 8.2.1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의 보건 및 사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한다.

8.2.2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취업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여성의 취업 정보 접근성을 좀 더 용이하게 만든다.

8.2.3 비공식 및 공식부문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포괄적이며 정형화된 자료 수집시스템을 수립하고 비공식부문 취업률 자료를 국가 통계에 산입한다.

목표 9

가정 경제 내 양성평등을 달성한다.

기대효과 9.1

가정경제 내 젠더 관계 분석 실시

활동계획

9.1.1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 사업 관련 경제 연구를 증대한다. 무대가성 가사노동과 가게 사업 활동 평가에 대해 홍보하고 양자를 국민경제에 산입한다.

9.1.2 NGO와 협동하여 가게수입 및 지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들의 사업 지식 및 활동을 고무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9.1.3 가정경제 관계에 대한 조사 연구를 늘린다.

기대효과 9.2

가정경제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입법안 제시

활동계획

9.2.1 가게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법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다.

9.2.2 은행 및 다른 대출 기관 신용 대출에 대한 성 분석을 실시하여 여성 우호적인 소액대출을 가능케 하는 실험적 기법을 도입한다.

9.2.3 경제 및 비경제 자원과 자산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 소유권, 관리의 성 분석을 실시하여 여성에게 좀 더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다.

3. 농촌 진흥 맥락의 양성평등

가축의 민영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가축업자의 생활수준은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사회 및 공공 서비스가 감소함에 따라 여성들의 일거리가 예전에 비해 많아졌다. 더 길어진 노동시간 및 노동량으로 인해 여성들은 교육, 자기계발, 건강에 힘을 시간이 줄어들어 그들의 삶의 질은 저하되고 있다.

몽골은 가뭄과 추운 겨울로 인해 인프라 시설 미비, 에너지 공급 부족,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결여, 정보 및 교육의 질 저하, 의료 및 문화 서비스 질 저하, 농가의 높은 위험부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게 만들어 도농 간 격차를 벌어지게 하고 있다. 농촌의 이와 같은 실태를 고려하여 교육, 보건, 정보 분야 서비스의 질을 높여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취업 및 가계수입에 있어 남녀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목표 10

농촌 남녀의 교육 및 정보 접근에 용이한 환경 조성

기대효과 10.1

소년의 퇴학률 감소 및 초등교육 취학률 증가

활동계획

10.1.1 학교 건물 및 기숙사 시설을 개선하여 농촌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10.1.2 농촌 지방 현직 선생님 대상으로 교육 방법을 개선하도록 한다.

10.1.3 특히 학교를 중도하차한 소년들의 비행을 부모와 후견인을 대상으로 하여 홍보한다.

10.1.4 비정부기관의 협조 하에 소년소녀 퇴학생의 보충 교육을 계획한다.

기대효과 10.2

농촌 인구의 양성평등, 특히 남녀의 경제적 자원의 동등성에 관련한 인식 및 홍보 증진

활동계획

- 10.2.1 지방 촌락 행정관 및 지방매체를 대상으로 젠더 이슈 교육을 시켜 풀뿌리 단계까지 성 인식을 확산시킨다.
- 10.2.2 여성 비정부기관의 협조 하에 지방 행정 기본 단위의 사회 봉사자들에게 젠더 이슈를 교육시키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10.2.3 지방 행정 기본 단위의 성 분석 능력을 배양하여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배포한다.

목표 11

지역 발전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 및 기여를 장려하고 이에 대한 평가 도구를 도입한다.

기대효과 11.1

농업, 목축 등의 활동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 증대

활동계획

- 11.1.1 토지 관리 및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기타 이슈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여성의 참여와 여성의 역할을 증대시킨다.
- 11.1.2 토지 사유화 과정 당시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정도와 토지 소유 기회의 정도를 평가한다.
- 11.1.3 자연 보호에 대한 인식과 토지 및 자연 보호에 있어 양성평등한 참여의 필요성 인식 개선을 위한 성인 및 아동의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을 증대시킨다.

목표 12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 보건 서비스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여 모성 및 유아 사망률 감소시킨다.

기대효과 12.1

여성 예방 보건 프로그램 실시하여 여성들의 질병 발생률 및 모성 이환율 감소 및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태도 고취

활동계획

- 12.1.1 남녀에게 생식건강 및 건강한 삶과 관련된 기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적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 12.1.2 균형적인 영양섭취, 안전한 음식, 식수, 응급처치 관련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만든다.
- 12.1.3 농촌 지방 모성 사망률에 기여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그 결과를 입안자 및 정책 결정자에게 보고한다.
- 12.1.4 남성 사망률에 기여하는 모든 요소를 조사하여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목표 13

농촌 지역에 남녀 모두에게 중소기업 설립 및 고용의 동등한 기회가 돌아게끔 하며 여성의 노동 및 경제 발전 기여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기대효과 13.1

남녀의 동등한 주인의식, 공공재 접근성, 소득분배가 가능한 혜택 제공 및 입법화

활동계획

- 13.1.1 재산과 수입을 나누는데 있어 가족 구성원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입법을 실현한다.
- 13.1.2 농업 및 가사노동, 특히 여성의 가사노동량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책으로 가능한 기술 도입에 주력한다.

기대효과 13.2

농촌 사회 남녀 고용률 증가 및 인구 전체의 생활수준 향상

활동계획

- 13.2.1 빈곤 가정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3.2.2 비은행 금융기관 및 신용, 협동조합 발전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13.2.3 지방 정부, 지방NGO, 민간부문간 협동 및 파트너십을 증진하여 농촌 지역 중소기업 발전에 지원한다.

13.2.4 농촌 발전을 도모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농촌에서 일하기로 계약을 맺은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부채 탕감을 해주는 등의 구체적인 주치를 취한다.

4.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의 양성평등

헌법 및 다른 법률상 몽골 국민의 모든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있어 여성의 대표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전환기를 거치며 여성의 대표성은 전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2.5배 감소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출직에 있어 여성의 대표성을 2000년까지 20% 달성하기로 국가 차원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그 목적은 달성되지 못했다. 2002년 조사된 바에 의하면 여성의 정치 참여는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다.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여성의 저조한 참여율은 관련 분야의 여성의 잠재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목표 14

의사 결정에 있어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대효과 14.1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 증가

활동계획

14.1.1 임명직 혹은 선출직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지도력 훈련 세션을 구축하여 그들의 지도력 기술과 영향력을 더욱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14.1.2 의사결정에 있어 여성의 참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비정부기관 및 연구기관을 지원하며 여성의 지도력 배양을 위해 정당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기대효과 14.2

여성의 공직 진출 확대

활동계획

14.2.1 인력개발 관련의 정부 정책에 젠더 관점을 반영한다.

14.2.2 공직 임용에 남녀 동등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여성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법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한다.

기대효과 14.3

행정부 내 지속적인 자료 수집, 분석과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통해 정치 분야의 여성 참여 확대를 지켜보며 평가한다.

활동계획

14.3.1 경제의 각 분야의 의사 결정에 양성 균형의 정도를 검토한다.

14.3.2 각 부서 및 정치적 활동의 의사결정 직위에 있어 남녀의 대표성을 다루는 연구를 지원한다.

14.3.3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목표 대상의 정보, 교육, 의사소통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안다.

기대효과 14.4

선출직에 남녀 대표성 고려하여 할당제 도입하는 정당 및 정치적 세력을 증대

활동계획

14.1.1 여성의 권리 신장에 힘쓰는 여성 NGO 단체와 협력하여 여성들이 선출직 및 비선출직에 진출하고 지도력 향상 교육을 제공하도록 정당과 협의한다.

14.4.2 정당 내 여성의 참여를 지지하는 정당의 모범적 사례를 널리 알린다.

14.4.3 정당 간 선출직 내 남녀 동등한 참여와 성 주류화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서로 논의하는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다.

14.4.4 정당과 긴밀한 관계를 이루는 여성 NGO를 통해 정당에 압력을 가한다.

기대효과 14.5

중앙 및 지방 선거 여성 후보자 증대

활동계획

- 14.5.1 여성지도자 명부를 개발하고 비정부기관, 정치 및 교육 기관과 협동으로 여성들의 선출직 참여 확대를 고무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한다.

기대효과 14.6

선출직 및 임명직의 여성 진출 필요성에 대한 대중 인식 고양

활동계획

- 14.6.1 비정부기관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여성 지도자의 성공적인 활동 및 그들의 직업적 성취를 홍보한다.
- 14.6.2 정부 및 입법기관에서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여성도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미디어 매체를 통해 확산시킨다.
- 14.6.3 지도력 훈련, 커리어 계획, 의사결정, 대중연설, 자신감 등의 교육을 포함한 여성의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을 고안한다.
- 14.6.4 여성 후보자들을 지지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5. 양성평등 국가 메커니즘 및 시민 사회의 참여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UN 회원국은 여성 문제를 다루는 국가 메커니즘을 설립하기로 했다. 몽골은 이에 따라 몽골 여성 연합이 정부 기관에서 비정부 기관으로 변모함에 따라 현재 여성 문제는 보건부 및 사회복지노동부에서 다루고 있다. 사회복지노동부는 인구, 가족, 아동, 청년, 젠더 문제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임무를 지닌다. 현재 양성평등 관련 정부 메커니즘은 젠더 정책 및 전략 수립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로 아직 정책 및 전략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목표 15

국가 양성평등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시민사회 조직의 참여를 늘린다.

기대효과 15.1

중앙 및 지방 차원의 국가 메커니즘 개선

활동계획

- 15.1.1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여 국가양성평등위원회의 더 포괄적인 참여를 가능케 하도록 개편한다.
- 15.1.2 사무처를 설립하여 국가 양성평등 계획 및 전반적인 성 주류화 전략 조정, 관리, 수행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지게 한다.
- 15.1.3 각 부서 및 지방행정부 정책에 알맞은 젠더 중요 부분을 설정한다.
- 15.1.4 국가양성평등위원회의 성 주류화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공직자와 전문가들과 정기적인 협의 회의를 갖는다.

기대효과 15.2

양성평등 입법 실현 및 젠더 문제 및 관점을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에 반영

활동계획

- 15.2.1 양성평등에 초점을 둔 연구를 시행하여 이 연구 보고서 결과에 따른 양성평등 법안을 마련한다.
- 15.2.2 양성발전 국가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 대한 질적 및 양적 정보를 수집하여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고 실행 과정을 검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조직한다.
- 15.2.3 양성평등을 도모하는 법안을 시행중인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한다.
- 15.2.4 정책 및 프로그램에 성 주류화를 반영하고 성인지적 예산을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의사결정자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기대효과 15.3

정부 및 비정부기관의 공고한 파트너십 구축 및 NGO 역량 증진

활동계획

15.3.1 국가 양성평등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NGO의 참여를 확대한다.

15.3.2 젠더 이슈 및 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차원의 정부조직과 학계, 교육기관을 포함한 정부 및 비정부 기관간의 협력을 증진한다.

기대효과 15.4

국제무대에서의 양자 및 다자적 협력 증대

활동계획

15.4.1 국제 및 국내 차원의 성 주류화 기관의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15.4.2 몽골 정부가 비준한 국제법 및 국제협약을 계속적으로 검토하며 향후 몽골 정부의 가입이 필요한 국제 협약에 대해 연구한다.

15.4.3 몽골 정부의 성차별철폐협약 및 인권, 아동 및 가족의 권리를 다루는 다른 협약의 이행결과를 일반 대중에게 알린다.

6.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평가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에서는 전반적인 감독기구를 평가하고 프로그램을 통한 경험 및 교훈을 평가하고 목적 달성을 평가한다. 프로그램의 효과 및 효율성에 대해 집행 기관에 보고된다. 평가 기간 동안 필요한 자원이 충분히 공급되었는지에 대해 논의될 것이다.

2007 연구보고서 (수시과제)-5

제3세계 여성정책 및 교육확대를 위한 연구

2007년 12월 28일 인쇄
2007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김 경 애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
전화 / 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늘 품
전화 / 2275-5326 (代)

사전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ISBN 978-89-8491-193-2 93330